



올해 강진청자축제는 지난해 대비 두 배에 가까운 관광객이 늘면서 축제장 매출이 대폭 상승해 '반값 강진 관광' 효과를 거뒀다. 사진은 (왼쪽부터) 축제 체험행사인 화목 소원 태우기, 어린이 놀이체험, 개막식 무대.



올해 강진청자축제는 지난해 대비 두 배에 가까운 관광객이 늘면서 축제장 매출이 대폭 상승해 '반값 강진 관광' 효과를 거뒀다. 사진은 (왼쪽부터) 축제 체험행사인 화목 소원 태우기, 어린이 놀이체험, 개막식 무대.



올해 강진청자축제는 지난해 대비 두 배에 가까운 관광객이 늘면서 축제장 매출이 대폭 상승해 '반값 강진 관광' 효과를 거뒀다. 사진은 (왼쪽부터) 축제 체험행사인 화목 소원 태우기, 어린이 놀이체험, 개막식 무대.

강진청자축제 20만4천여명 방문... '반값 관광' 효과 톡톡

관광객 전년比 92% ↑ · 매출도 67% '쑥' 현장 환급 이벤트·어린이 콘텐츠 등 인기

제52회 강진 청자축제가 열흘간 20만 4천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반값 강진 관광'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막을 내린 제52회 강진청자축제는 '강진 올레?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92% 상승한 20만 4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번 성과는 올해 처음 시작한 '반값 강진 관광'의 흥행과 어린이 콘텐츠 대거 확충, 축제 비수기 시즌 공략, 지난 1973년부터 회를 거듭하며 '계승·보완·발전' 해 온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두 배에 달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청자와 특산품을 비롯한 축제장의 매출도 대폭 상승했다. 축제 현장 매출별로 ▲청자판매 3억8천655만7천원 ▲농특산물 4천467만5천원 ▲먹거리타운 2억3천354만2천원 ▲강진한우촌 6천389만5천원 ▲하멜촌 카페 2천553만9천원 등 총 7억5천600만2천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그 어느 해보다 마케팅 축제로써 성공했음을 입증했다. 이 가운데 청자 판매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늘어 강진과 청자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강진한우촌은 먹거리타운에서 나와

별도의 부스로 설치해 식당 내부의 쾌적함을 유지했고, 더불어 숯불과 상차림을 준비해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구이용 강진 한우를 선보여 총 840kg이 판매돼 강진 한우의 맛과 품질을 널리 알렸다. 축제장에 방문한 인파는 인근 주요 관광지인 가우도, 마량항, 백련사 등으로 이어져 축제 기간(2월23일~3월3일)에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천377명 대비 91% 증가한 5만8천219명이 방문, 성공한 축제의 파급효과를 여실히 증명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냈다.

올해 처음 시도한 반값 강진 관광 혜택과 함께 축제장 안에서는 당일 축제장에서 소비한 금액의 20%를 강진사랑상품권(지류)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해, 모든 관광객들에게 알뜰 여행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했으며, 축제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읍 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체험행사는 ▲장작패기 ▲죽옥체험 ▲물레성형 ▲샌딩아트 순으로 관광객이 많았고, 청자축제장과 읍 아트홀에서 번갈아 공연된 어린이 싱어롱쇼(브레드 이발소, 신비아파트)는 4천600명

이 몰리며 인기 행진을 이어갔다. 푸드 코र्ट도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맛과 양에서 대체로 합격점을 받아, 남도 맛의 위엄을 다시 한 번 뽐냈다. 강진원 군수는 "축제는 관광이며, 관광은 경제"라며,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축제 비수기에 축제를 개최해 틈새시장을 공략했다"며 "앞으로 더 풍성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만족과 충만한 감성을 주는 축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전국 최대 배 주산지' 나주,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

8억6천만원 투입...방제단 운영·약제 공급 앞당겨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과일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제단 운영, 약제 공급 등에 8억6천만원을 투입한다.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세균성 질병으로 발병시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심할 경우 나무 전체가 죽게 된다. 한 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빠르게 전염된다. 발병 후엔 치료 약제가 없어 발생 즉시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때문에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기적인 예찰과 제방 가지 제거를

위해 전문 지도·약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집중관리 기간인 지난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동절기 제방 제거를 위한 현장 예찰 안내에 집중하고 있으며, 화상병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예찰, 방제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방제단은 관내 과원 전체 면적 1713ha를 순회하며 선제적으로 병을 예찰하고 발병 의심 신고, 제방 부위 전정 작업 요령을 지도한다. 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 예방 교육을 총 10회에 걸쳐 농업인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인상담소 등과 협력해 농가 예방 실천 요령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평년 대비 따뜻한 겨울 날씨로 배, 사과와 휴면이 일찍 풀린 것을 감안해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시기를 전년보다 열흘 앞당겨 이달 12일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약제는 지난해 연말에 사전 신청한 농가 2천282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3종 약제를 선정, 나주배원예농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조성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내 과원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주기적인 예찰은 물론 작업 도구 소독, 외부인 출입관리 등 철저한 과원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며 "명품 나주배 명성 유지와 농가별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방제단 운영, 약제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해남, 농어민공익수당 1만4천805명...총 89억 확정

내달 중순 1인당 60만원 해남사랑상품권 지급

해남군은 5일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대상자 1만4천80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중순, 농어민공익수당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60만원씩 총 89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농어민공익수당 확산의 마중물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하고 관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군은 5일 "2024 장난감도서관 상반기 꿈꾸는 키즈교실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만 9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오감발달 4강좌 ▲퍼포먼스미술 2강좌 ▲독서프로그램 2강좌 ▲유아체조 2강좌 ▲바둑왕 2강좌 등 총 5개 분야 12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모집인원은 총 136명으로 강좌 별 10~13명 이내이며, 선착순으로 1인 1과정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장소는 여성문화센터와 흥농읍 복지회관 4층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장난감도서관(061-353-5257) 또는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061-350-55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동규 기자

지원 대상은 올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일 기준(학교별 입학식 시행일) 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는 학생이다. 입학 축하금은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초등학생에게는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20만원이 각각 1회 지급된다. 올해는 약 920명의 학생이 축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 지급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교육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화폐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완도군,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원

초등 10만원·중고등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완도군은 5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입학학생에게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일 기준(학교별 입학식 시행일) 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는 학생이다. 입학 축하금은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초등학생에게는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20만원이 각각 1회 지급된다. 올해는 약 920명의 학생이 축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 지급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교육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화폐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부당해고 불복' 목포시 산하기관 재심 청구

대리 노무사 선임도...1인 시위 장기화 전망

목포시 산하 출연기관 파면근로자 A씨의 복직투쟁 1인 시위(본보 2월27일자)가 해당 기관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에 따라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A씨에 대한 부당해고인정 심판에 대해 불복한 목포시 출연기관측이 지난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신청은 심판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재심 청구서만 제출했으며 신청이 유서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게 해당 출연기관 측의 설명이다.이유서 제출시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출연기관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업무를 대리할 노무사를

별도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는 원직복직이 될 때까지 복직투쟁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목포시청 정문에서, 나머지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목포역, 목포버스터미널, 평화광장 등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목포시출연기관 관계자는 "지역노동위원회의 심판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지난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며 이유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제출할 계획"이라며 "대리인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거주지 이전주민 지원대책 촉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 논의

함평군은 5일 "최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의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제8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 이전 완료 목표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보상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함평군 축산

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차차별 보전 등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설명 및 지난 7차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한 보상 관련 논의를 실시했다. 주민대표 위원은 상호 체결된 합의각서와 관련법(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해 이주 지역민 지원대책 수립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군 관리기본계획 실시계획인가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친 후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함평=김연수 기자